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비교 및 개선방안*

김 신 복**

<目 次>

- | | |
|-----------------------|----------------------|
| I. 대학입시제도의 기능과 요건 | IV. 외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 비교 |
| II. 대학입시제도 변화의 시계열 비교 | V. 입시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 III.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 VI. 세부적 발전방안 |

<요 약>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비교고찰을 통해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기능과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을 시계열(time series)별로 살펴본 다음에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 입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방향과 세부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대학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큰 투자없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둘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개혁의 단골메뉴처럼 되어왔다. 이번 국민의 정부 역시 2002학년도부터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는 수없이 많이 변경되어 왔지만 아직도 초중등교육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역기능과 부작용이 없는 입시제도를 고안해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증상위주의 땀질식 대응을 계속해온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입시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한바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입시제도의 주요특징과 시행결과들을 비교 고찰해보고 아울러

* 이 논문은 1997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주요선진국들의 입시제도를 비교검토 해본 연후에 우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대학입시제도의 기능과 요건

대학입시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입학적격자를 가려내는 선발적 기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이다.¹⁾ 이밖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정의의 실현과 문화향달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도 중요하다. 물론 대학 교육 수학 적격자 선발이 대학입시의 본질적 기능이라면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은 그 부수적 파생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는 그 국가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전통이나 사회체제,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미 여러나라들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적격자 선발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질적 기능인 적격자 선발기능 못지않게 부수적 파생적 기능인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제도가 기본기능을 충족하고 및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흔히 제시되고 있는 입학시험제도의 일반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수학적격자 선발: 응시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적성을 얼마나 잘 변별할 수 있는가는 입시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2) 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대학입시는 하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비교육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시준비위주의 교육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3) 사회적 학습 및 통합: 대학 입시제도는 국민들의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해서는 안된다. 입학지원과정에서 소위 “눈치작전”등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소외계층에게 불리한 제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 황정규, “대학입시경쟁, 그 이상과 현실”, 대학교육, 통권 제33호(1988. 5).

이밖에 대학입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갖추어야할 조건은 흔히 다음 두가지가 중요시된다. 첫째로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는 학교 자체의 지역적 특성, 교육적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생선발의 자율성은 대학들이 관리능력과 윤리의식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냐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경제적 낭비없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운영과 전형관리가 어려워 학생선발에 차질을 가져 온다거나 수험생들이 입시전형과정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Ⅱ. 대학입시제도 변화의 시계열 비교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를 보면, 입시정책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 말해도 될 만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시제도는 큰 줄기만도 10여 차례 이상 바뀌었고, 세부사항의 변화를 포함한다면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²⁾

입시제도의 변천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등의 변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전형방법 중심으로 그 적용된 시기에 따라 요약해보면 다음표와 같다.

시 기	전 형 방 법
1945-1953	대학별단독시험
1954	대학입학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병행제
1955-1961	대학별단독시험, 무시험 전형 병행제
1962-1963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1964-1968	대학별 단독시험제
1969-1980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제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 고교내신제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1986-1987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제
1988-1993	대학입학학력고사, 고교내신제
1994-	고교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병행제

2) 이종재 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1995. 8.) pp.28-37.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대학입학전형제도들을 ① 제도의 도입 배경, ② 내용상의 특징, ③ 시행의 결과로 나누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³⁾

가. 대학별 단독 시험제

학생선발의 권한은 대학에 부여하였으며, 입학시험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대학별로 단독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당시, 교육정책의 큰 과제는 자유주의의 체제에 알맞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일이어서 대학입시제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관리 운영을 대학 총학장 회의에 위임하여, 정부당국의 별다른 규제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별 고사에는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고사가 병행되었는데, 필기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가급적 많은 교과목을 부과함으로써 고교측의 요망사항을 대학에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시험과목은 국·영·수·사회가 필수로, 선택과목으로는 실업교과에 중점을 두어 이 교과목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과목을 택하도록 하였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졌다. 정부수립 초기엔 대입 자격자 및 지원자 절대부족으로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되었으나, 몇 년 후부터는 대학의 자율권을 악용하여 징집유보를 위한 수단으로 대학을 이용하려는 학생과 농지개혁으로 인한 사학의 토지수의 격감을 보충하려는 대학측의 이해가 결합하여 정원초과 모집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와 대학생의 병역특전에 따른 부정입학이 성행한 점이고,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54년에 공공성과 기회균등의 정신을 살린다는 취지로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자 교육당국은 대학의 권위와 질적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대학입학 연합고사”를 대학별 입학시험 전에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대학연합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여자와 제대 군인에게는 연합고사를 면제해 주었다. 이 제도는 입시준비의 이중 부담과 일부 권력층의 자녀가 연합고사에 탈락하였다는 정치

3) 이하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는 노종희 외, 학생선발제도 개선방향 탐색: 고등 교육 단계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1983): 윤정일, 고등교육입시 정책(한국교육개발원, 1984): 박도순 외, 새 대학입학 시험제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3) 등의 연구를 참조함.

적 이유 및 특혜조치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제기 등으로, 당해 연도에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무효화되었다.

이 제도는 연합고사제의 실패로 도입된 것으로 대학별 단독 시험제가 부활되었다. 대학별 고사의 실시와 함께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입학 적격자의 선발을 위해 내신제의 실시가 권장되었으며, 내신성적을 반영한 무시험 전형 혹은 대학별 단독시험이 병용되었다. 무시험 전형에서 최초로 내신제를 활용하여 전인적 평가를 중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으나, 대학간의 학력차와 정원 초과 모집이라는 학사 부조리가 다시 발생하였다.

1962-1963년에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로 전환했다가 대학별 단독시험제도로 다시 바꾼 것은 군사혁명정부가 시도한 대학정비안 과 국가고사제 방법을 사전에 대학당국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 많은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국가고사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되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 학생선발권을 요구하고 정치, 사회적 변화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해짐에 따라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다시 시행케 된 것이다.

1964-1968년 기간중에는 시험과목 축소와 대학문호의 상대적 협소 때문에 고교 교육은 더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나.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는 5·16군사혁명정부가 교육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수립하여 1962-1963에 실시한 제도이다. 이는 입시관련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즉 일부 사립대학의 부정입학, 정원초과 모집, 무자격자 입학허가 등의 병폐를 일소하고, 간판위주의 대학진학으로 인한 대학 졸업자의 실업을 증가를 막으며, 대학교육 적격자만 진학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대입자격 국가고사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의 성적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고사, 신체검사, 면접등의 결과를 합산한 성적으로 신입생 전형을 했다. 시험과목은 국어1, 사회, 수학1, 과학, 실업, 가정, 영어 등 필수과목으로 6과목과 선택과목으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고교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합격자 수는 정원의 110%로 하되 여성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남녀별로 합격사정을 했다.

정원미달의 부실대학은 점차 폐쇄시키고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실업계 고졸자가 동일계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서류전형과 대학적성검사만으로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선발하였다.

국가고사제는 본래, 입학의 자격여부를 판정하는 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선발고사의 기능까지 하도록 강요했다는 점과 대학의 입학 허가권을 국가가 관장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사제의 시행상의 문제점들로는 ① 국가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이 결정되므로 신입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이 도의시 됨, ② 일류대학에 지원자가 집중하여 정원미달사태가 벌어졌고, 당국은 정원미달 대학을 위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여 고사의 신뢰성을 잃음, ③ 지역간, 인문·실업계 고교간 합격을 격차가 심함, ④ 학과별 선발 실시로 학과에 따라서는 성적이 불량한 자가 합격되는 등 본래 의도한 적격자 선발취지를 살리지 못함, ⑤ 실업계 고졸자에게 부여한 서류전형 특전은 본래 의도와 달리 실업교육의 진흥책이 못됨, ⑥ 대학입시에서 실기고사, 체능고사의 비중이 과다하여 대학입학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됨, ⑦ 객관식 출제로 학생은 단편적 지식을 주로 암기함으로써 고등정신능력을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문제점을 남기었다.

다.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제

국·영·수 중심의 대학 본고사 및 사회에서의 지나친 학력별 임금격차등은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가져왔고, 과열과외로 국민의 빈부간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재수생 급증 문제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개혁내용은 ① 1981학년도부터 본고사 폐지, 출신고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 선발, ② 졸업정원제, ③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강의 개설로 대학시설과 인력의 최대한 활용, ④ 대입인원의 연차적 확대 등이었다.

이전 입시제도에서의 무제한 복수지원으로 야기된 정원미달 사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내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하에 대입학력고사 성적과 고교내신성적으로 선발하게 하였다. 이 방법은 학력고사 성적 50%이상과 고교내신성적 30%이상을 반영하고 고교 전학년을 근거로 내신을 산출하는 것이었다.

라.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제

1982년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을 ‘대학입학학력고사’로 개편 하였으며, 합격선을 철폐하고, 학력고사 성적을 그대로 대입 전형에 활용하였다. 시험과목 수는 고교측의 요구와 해당과목 전공 대학교수들의 요구에 의해 점차적으로 늘어나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었으며 그러한 비판에 따라 1987학년 이후 필수 5과목, 선택 4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수험생의 대학지원 방식과 입학전형방법은 임기응변식으로 바뀌었는데, 1981학년도에는 전시험 후지원, 복수지원(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우수학생의 재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을 허용했다. 그 결과 극심한 눈치작전과 유례없는 정원미달, 전국의 대학간·학과간 상대적인 서열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학년도부터는 ‘선지원 후시험’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채점과 관련하여 착오와 부정이 발생하고 고교에서는 대학과 학과의 선택기준이 부족하여 진학지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입학력고사의 문제점은 우선,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과 학생 선발권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 융통성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점’이었다.

둘째, 고등학교 입장에서 ‘고차적 정신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암기·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이 되며, 학생자질의 전반적인 발달보다는 “점수”만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학부모 입장에서 ‘수험생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주고 그 교육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과열과외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에 대한 비판 때문에 80년 7.30 교육개혁조치부터 고교내신제를 반영했다. 고교의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과외지도 비용에 드는 학부모의 막중한 경제적 부담, 계층간의 위화감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과열과외를 근절시키기 위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고교내신과 학력고사 성적의 합산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것이다.

고교내신제의 기본 전제는 지역간, 학교간의 현실적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고교를 동일수준으로 취급하여 고교성적을 등급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교교육의 정상화, 중등학교교육의 평준화 촉진,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재수생 대책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중치를 두어 합산한 환산점의 총점에 의해 계열별 석차를 산출하고 등급을 판정하였다. 교과성적은 90%, 출석성적은 10%를 배점하였으며 고교내신 성적을 입시 총점의 3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질적 반영비율은 매우 낮았다.

내신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들 수 있다. 즉 과열과의 현상은 한풀 꺾이고 학생들의 관심과 열의를 학교교육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었으며, 전교과목이 내신성적에 반영됨으로서 특정 교과 편중의 파행적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농·어촌, 도시 빈민지역 학생에게 상대적 이익을 주어 고교평준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으며, 대학입시의 선발적 타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교내신제의 문제점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상대적으로 서열화하고, 등급화해서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방식은 결국 교육현장의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학교간 학력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문제,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나 잡음을 없앨려고 객관식 선택형 위주의 평가를 함으로써 교육평가의 타당도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1986-1987년의 대학입학자 선발방식은 학력고사 50%이상, 고교내신 30%이상, 논술고사 10%이내를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실시배경은 대학별고사 폐지로 대학이 학생선발에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되고 평가문항이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논술고사의 개념 속에는 ① 고차적인 사고능력 측정, ② 탈교과적, 범교과적인 성격을 소재로 함, ③ 자유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서술형 문항 출제, ④ 주관식 채점이라는 특징이 있다. 논술고사 실시 목적은 대입 학력고사에서 선택형 객관식 문항만 출제함으로써 파생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다.

논술고사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구조화가 덜되고 너무 막연하여 수험생을 당황스럽게 만든 문제가 다수있다. 즉, 방향성, 제한성이 결여되거나 특수한 분야의 지식, 경험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 고사 병용제

입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 고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로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되었다.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면서, 고교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별 고사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대입학력고사와 내신제에 의한 선발방식의 가정 큰 문제점은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의 타당성 결여,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 제한 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평가영역과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40% 이상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대입학력고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율적 판단으로 대학별 고사를 세과목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중요한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업능력평가를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고교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이다. 이 시험은 대학수학에 기초가 되고 공통적인 보편적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고교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출제되는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이고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의 일체를 관장한다. 이 시험은 언어 영역, 수리·탐구영역, 외국어 영역으로 구분된다.

고교 내신성적을 제외한 여타 전형자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여 부분적으로 대학의 선발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전형절차면에서는 특차모집, 전·후기 모집 등을 이용한 복수지원제가 실시되었다. 대학의 자율적 선발과 고등정신능력의 측정이라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Ⅲ.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⁴⁾

첫째로,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 여전히 대학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에 부여된 자율성의 폭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들이 주어진 자율성의 한계내에서나마 실제로 행사하는 자율의 폭도 그리 넓지 못한 상태이다.

각 대학들이 건학이념이나 전통, 교육목표와 여건에 걸맞는 독자적인 학생선발 방식과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등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

4) 조성종, 「대학입시제도의 변천 및 발전방안연구」, 중앙공무원 교육원, 1997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pp.39-42 참조.

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생선발에 있어 아직도 평가척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행제도는 대학입시의 다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지 못하면 다른 부문에서 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셋째로, 현행 입시전형의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각 대학교 및 학과의 합격선(cutline)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발전된 학력고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식이 통합교과적이고, 또 정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암기보다는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몇몇 교과에 국한된 학업성취도 시험으로서, 전인교육을 통한 실천적 평가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입시준비교육과 과외공부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넷째로, 학교생활기록부는 종전의 내신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종전의 내신은 모든 교과성적을 합산하여 그 성적순으로 일렬로 세워 석차를 매긴 것이었다. 반면에 학교생활기록부는 각 교과별 성적과 석차만을 제시해줄 뿐 모든 교과성적의 합산은 하지 않으며 종합석차는 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의 비교과활동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 대학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특별활동이나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을 반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학교간의 학력차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전제로한 고교성적의 반영이 불가피하지만 학교간의 학력차가 엄존하는 마당에 이것을 도외시킨 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반영비중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과학고,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이른바 특수목적고등학교 내신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다섯째로, 상당수의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의 경우 대학수학에 필요한 일반능력으로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 선택형 위주인 고등학교 평가관행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

촉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의 양측면에 걸쳐 유용한 전형자료이다. 그러나 그 소재의 선택 및 문항개발이 어렵고 또 채점에 있어서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단 한번만의 논술고사만으로 그 본래의 목적인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들이 입시전형의 관행으로 유지해온 학업성적 위주의 전형이 과연 타당하기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현행 대학입학전형제도는 각 대학들의 교육이념이나 계열별 학과별 특성에 따라 전형유형과 전형기준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전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주된 전형자료로 하여 학업성적을 단순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특성을 전형에 반영하여 적격자를 선발하기 보다는 학력우수자가 곧 우수학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내부에서 행정상 번거롭기 때문에 선발기준을 단순화시켜 적용하거나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의 결정이 수능시험 고득점자 확보위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일곱째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자주 변경되었을 뿐아니라 대학간에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입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이들의 진학지도를 담당하는 각 고등학교들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가 대부족하고 또 학교간에 격차가 심하다. 정부와 대학들이 진학 진로지도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유통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진학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각 대학의 전형계획과 모집요강 등을 집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Ⅳ. 외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 비교

가. 미국

정책의 기초는 고등 교육 개방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형보다는 개방형, 기준이상 합격형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입학허가라는 말 자체가 선발이라는 의미보다는 적정한 배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각 대학들은 다양한 방식과 기준에 의해 종합적 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학생 선발 방식에 있어 12년간의 초·중등교육의 수료를 기본요건으로 하며, 전형자료로서 중등학교의 내신서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⁵⁾

미국의 경우 각 대학들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척도를 활용한 종합적인 전형 제도를 운영한다.⁶⁾ 각 대학은 다음 요인들의 적절한 배합으로 입학を 결정한다. 첫째로 일정수준 이상의 고등학교 성적으로 평균 점수 혹은 순위 백분율, 둘째로 지정과목의 이수단위로 예를들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이수년수, 셋째로 학업 적성검사(SAT), 학업성취검사(ACT)같은 지정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 넷째로 기타 면접결과, 추천장, 소논문 등의 자료 등이다.

대학입학적격자 선발을 위한 공적인 테스트로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있는데 시험의 결과는 대학입학적격자 선발, 중등학교 진로지도 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뿐이지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나 중등학교 수료시험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⁷⁾ 본래 1900년도부터 입학검사프로그램(Admission Testing Program: ATP)으로 학업적성검사(Scholastic Aptitude Test: SAT)와 학업성취검사(Achievement Test: ACT)가 있었는데 1994년 5월부터 이를 각각 SAT1과 SAT2로 명칭을 변경하여 SAT로 통합하였다.

SAT 1은 종전의 SAT로서 추론능력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언어능력평가와 수리능력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SAT 2는 종전의 ACT로 수학, 물리, 화학 등 과목별 학력평가시험으로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 주로 학업성취 평가에 초점을 둔다.

전형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방형(open door)으로서 학습능력을 불문하고, 희망자 전원을 입학시키거나, 고교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는 전원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둘째는 기준이상 합격형(selective)으로서 입학요건으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학력내지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전원 입학, 또는 선착순 선발에 의해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셋째는 경쟁형(competitive)으로서 성적자료, 고교내신자료, 지원자 제출자료, 면접결과등 복합적인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정원만큼의 입학자를 선발하는데, 하나의 설정된 전형기준에 따라서 구비서류를 분석하여 일괄적으로 사정하고, 전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학생의 학습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적인 입학사정을 하기도 한다.⁸⁾

5)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선발제도 개선방향 탐색 (1983), p.47.

6) 이종재 외,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5), p.249.

7) 한국교육개발원, 상계서, p.50.

8) 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1994), p.397.

나. 영국⁹⁾

만 16세 말 경이 되면 영국의 모든 학생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등교육수로 자격고사(GCSE)를 치르며 이 중 약 60% 정도는 후기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한다. 후기 중등교육기관에는 6형식학교(Six Form College), 제3단계학교(Tertiary College), 계속교육학교(College of Further Schooling) 등 대체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6형식학교가 전적으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이다.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는 GCSE 시험등급, GCE A-level 시험등급, 내신점수, 학교장 추천서, 담임교사의견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결과등이 전형자료로서 사용된다. 이 중 내신 점수는 우리나라 내신제와 달리 등급을 산출하여 별도의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GCSE 필기시험 점수에다 내신 점수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GCSE 시험이나 GCE A-level 시험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준다. 학교장 추천서, 면접결과, 입학원서에 기입되는 담임교사의 의견서 및 학생자신의 자기소개서 등은 주된 전형자료는 아니지만 보조자료로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시험유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는 중등교육수로 자격시험으로서 전기중등학교 졸업시(16세) 치르는 시험인데 자신의 능력에 따라 5-10과목 정도를 택하며 A~G까지 등급을 부여받는다. GCSE 시험의 결과는 후기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전형자료로 쓰이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전형자료로도 사용된다. 둘째로 GCE A-level(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level)은 후기중등학교졸업직전에 응시하는 시험으로 영국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자료이다. 보통 자신이 이미 치른 GCSE 과목 중 6형식학교에서 다니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3과목 정도에 응시하게 된다.

셋째로 AS-level(Advanced Supplementary-level)은 1990년도 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A-level과 수준 및 난이도는 비슷하나 내용의 범위를 50%로 축소한 시험과목을 설정하였다. AS-level 두과목은 A-level한 과목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형방식을 보면 대체로 시험과목은 3개내지 4개로서 논술형으로 치루어지나 지원 대학 및 지원학과에 따라 어떤 수준의 과목을 몇가지나 준비해

9) 이종재 외, 전계서, pp.252-263.

야하느냐가 달라진다. 입학에 관한 상세한 선발기준을 오래 전에 공고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대학입학 안내책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은 중등교육기간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공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후기중등교육은 3년과정의 고등학교인 리세(lycee)에서 이루어진다. 고등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한데, 바칼로레아 소지자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일반 대학교(universite), 바칼로레아 이외의 경쟁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전문직 영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랑제콜(grandes ecoles), 우리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단기기술대학(Institut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 IUT) 및 고등기능인 양성대학(Sedition de Technologie Superieur: STS), 장기대학, 특수계열 대학 등이 있다.

일반 대학교는 바칼로레아 취득자가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바칼로레아 학위 소지자는 정원제 학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의 전공학과와 입학이 허가된다.¹⁰⁾ 그랑제콜에 진학하려면 바칼로레아 학위 소지자는 리세에 설치된 고등준비학교에서 1-2년 동안 입시준비교육을 받은 후에 입학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¹¹⁾

대표적인 대학입학 전형자료는 바칼로레아인데 국가시행의 학력평가 시험으로서 중등교육수료자격과 대학진학자격을 동시에 심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외에 내신성적도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바칼로레아에 비해 입학可否의 결정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바칼로레아(Baccalaureat)는 국가시행의 학력평가로서, 고교교사가 출제하고 채점하며, 문항의 형식은 논리적 사고력과 정확한 표현력을 측정하는 논술형이 대부분이며, 대개 한 과목당 1-2문제 정도이다.¹²⁾

바칼로레아의 종류는 일반 바칼로레아, 공업기술 바칼로레아, 직업 바칼로레아의 세가지가 있다. 일반 바칼로레아는 가장 전통적인 것이며 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인문·사회·자연계로 세분된다. 공업기술 바칼로레아는 1968년 신설되었는데, 바칼로레아 취득 후 산업현장, 실험실, 행정공학, 예능공학분야에서

10) 이돈희 외, 대학선발제도의 비교연구(1994), p.42.

11) 이규환, 전계서, p.268.

12) 이돈희 외, 상계서, p.47.

취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지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대학진학과 비교적 밀접한 것이 일반 및 공업기술 바칼로레아(총 24개 계열)이다. 일반 바칼로레아는 인문분야 A1(문학-수학) · A2(문학-언어) · A3(문학-예술), 경제분야 B(경제학-사회학), 과학분야 C(수학-물리학) · D(수학-자연과학) · D'

(농학-공학) · E(수학-공학) 등 8개 계열로 구성되고, 공업기술 바칼로레아는 F1(기계학)-F12(응용예술), G1(행정학), G2(상업), G3(경영학), H(정보처리) 등 16개 계열로 세분된다.

고사 과목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과목인 프랑스어 · 사회 · 제1외국어 · 수학 · 물리 · 자연과학 · 체육 등 7과목이 중심이 되고 고교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제시되지 않는 철학을 쥔 계열 필수과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특이하다.

전형방식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일반대학은 개방형으로서 바칼로레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으로 합격하면 그랑제꼴을 제외한 일반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둘째로 그랑제꼴은 경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적순으로 충원하며 바칼로레아 합격후 2년간 진학준비반을 거쳐 별도의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셋째로 특별전형방식이 있는데 바칼로레아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도 예를 들어 24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연금을 지불하는 직업 활동을 2년간 한 20세 이상인 자는 1956년부터 특별입학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라. 독일

후기중등교육(15-18세)은 종합제학교, 김나지움상급반, 전문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직업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나지움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한 수준 높은 교양교육을 받게 되며 10학년까지의 과정을 마치면 김나지움 상급반에 진학해서 3년 과정을 마친 후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

독일에서 대학이라면 일반적으로 학술대학을 말하며, 종합대학교(Universität), 대학(hochschule),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 등으로 부른다. 종합대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Gesamthochschule도 학술대학이다. 독일의 대학은 1류 · 2류의 구분이 없고, 모두 동급이며, 역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제 1 유형은 유서깊은 대학들로서, 대개 의학 · 법학 · 신학 특히 철학이 주요 학과로 전통을 계승하고, 훨씬 후에 자연과학 · 경제 · 사회학과 등이 증설된 대학들이다. 제 2 유형은 자연과학과 같은 기초학문에 토대를 둔 기술계통의 특수학과

로 구성된 대학들이다. 즉 공과대학·의과대학 또는 경제학부로 시작하여 최근 다른 학부들이 증설되어 커졌거나 아니면 그대로 단과대학으로 남아 있는 대학들이다. 제 3 유형은 1960년대에 세워진 신흥대학들이다. 이는 舊 대학들의 결점을 보충했고, 지역 특수성에 따라 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일면 대학입학지원자 증가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대학들이다.¹³⁾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아비투어 시험은 필답고사와 구두시험으로 구성되고 자연과학 분야와 예·체능계에서는 실기시험이 추가로 부가된다. 아비투어 합격자는 원칙상 전국의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든지 진학할 수 있다.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대학입학정원 중앙관리소' (Zentr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ZVS)를 통하여 전국적인 입장에서 선발·배분 된다. 특히 최근에는 진학 희망자의 증가로 의학·물리학·화학 등과 관련된 학과에서 수시로 입학정원 제한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원을 제한하는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비투어시험 성적이 높아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각 주마다 성적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아비투어 연방 평균성적에 대비하여 성적을 환산하기도 한다.¹⁴⁾

독일의 경우 대학별 입학시험은 없고, 아비투어시험 성적과 김나지움 상급반에서의 코스이수 성적이 주된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선발의 경우에는 적성테스트 결과가 전형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김나지움의 상급반은 일반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교과목들은 세 분야로 구분된다.¹⁵⁾ 즉, 제 1 분야는 언어 문학 예술분야로서 독일어·음악·예술·영어·프랑스·러시아어·스페인어·네델란드어·이탈리아어·라틴어·그리스어·히브리어 과목을 택해야 하고, 제 2 분야는 사회학분야로서 역사·지리·철학·사회과학의 사회학 및 경제학·법학·교육학 과목을 택해야 하며, 제 3 분야는 수학 및 자연과학분야로서 수학·물리·생물·화학·가정·경제·컴퓨터·기술·종교·스포츠·심리학 과목을 택해야 한다.

김나지움 상급반은 김나지움의 11학년에서 13학년에 해당되는데 13학년 2학기(5월 중순)에 아비투어시험을 치른다. 아비투어 시험 과목인 4개과목(전공과정과 기초과정 각 2과목씩) 안에는 위의 3개 영역에서 각 1과목씩이 포함되어 있어야

13) 최정웅 외, 비교교육발전론(1995), p.319.

14) 이돈희 외, 전계서, pp.49-52.

15) 최정웅 외, 전계서, pp.306-307.

하며, 다른 1과목은 반드시 국어, 수학, 외국어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아비투어 시험의 시험과목은 중점과목 2과목(제1·2과목)과 기본과목 2과목(제3·4과목)이다. 제1·2·3과목은 필기시험이고, 제4과목은 구술시험이다. 아비투어시험에서 과목낙제를 할 경우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에 재시험을 신청해야 하며, 아비투어시험은 1회에 한하여 반복할 수 있다. 대학입학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비투어시험 성적 외에도 12-13학년 코스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비투어 시험에 합격을 한 후 아비투어 성적표를 첨부하여 대학입학지원서를 '대학입학정원 중앙관리소'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에 따라 입학사정을 한다. 첫째는 배정모형으로서 대학입학지원자들은 제1지망 대학의 학과에는 입학할 보증 받을 수 있으나 정원 초과시 다음 순서대로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① 장애자, 기혼자와 자녀가 있는 지원자 ②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③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 부모 또는 피부양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신청한 대학, 이 대학에 자리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대학에 입학이 허가 된다.

둘째는 일반선발모형으로서 성적에 따른 우선 선발, 주별(州別) 할당 선발, 대기기간에 따른 선발, 舊 동독지역 지원자에 대한 특별배정 등으로 선발한다.

셋째는 특별선발모형으로서 다음 방식에 의한다. ① 적성테스트에 의한 선발: 의학과에 지원할 아비투어 소지자는 김나지움 13학년 때 의학적성시험을 보아야 한다. 지원자는 단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아비투어와 적성테스트의 조합: 의학부 입학정원의 45%는 아비투어 성적과 적성테스트 성적을 합하여 우수한 순서대로 선발한다. 아비투어 성적과 적성테스트 결과의 반영 비율은 55%:45%로 한다. ③ 테스트 성적에 의한 선발: 정원의 10%는 테스트 성적 우수자 순서대로 선발한다. ④ 대기기간에 의한 선발: 정원의 20%는 대기기간이 긴 순서대로 선발한다. ⑤ 면담에 의한 선발: 입학정원의 15%는 면담에 의하여 선발한다. 면담대상자 선정은 대학입학정원 중앙관리소에서 추천한다. 면담에 의한 선발에는 단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마. 일본

일본의 대학입시제도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와 사립대학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일본 대학의 73%가 사립대학이므로 일본의 입시제도는 사립대학의 입시라고도 할 수 있다.¹⁶⁾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센터가 관장하는 표준화 학력적성검사의 성격을 띤 공통 제 1 차학력시험(1990년부터는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이름을 바꿈), 개별대학에서 실시하는 제 2 차시험, 고교내신성적, 면접등의 결과로서 학생을 선발한다.¹⁷⁾ 제 2 차 시험에는 지망하는 대학, 학부의 목적이나 특성에 맞는 논문식의 문제나 소논문을 부과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고등학교에서 제출하는 내신서 및 면접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사립대학과 초급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학본고사, 고교 내신성적, 면접, 실기시험 등의 결과로서 학생을 선발하며 내신자료만으로 정원의 일정비율을 선발하기도 한다.

공통 제 1 차 학력시험은 고학력지향, 유명학교편중 등의 풍조를 시정하고, 국·공·사립대학을 특색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입시제도개선회의'에서 추진하여 시행하게된 시험이다. 1979년부터 국·공립대학 학생 선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성취수준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험과목도 필수교과 내에서 출제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자격시험은 아니므로 합격·불합격은 없고 다만 득점결과가 대학입학을 위한 전형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공통1차시험은 사립대학의 입시보다 과목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 학생들이 국공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국공립대학들도 공통1차시험의 전과목이 아닌 일부과목만을 이용하는 문제와 사립대학도 공통1차시험을 이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85년 '입시교육심의회'는 기존의 공통1차시험에 대신하여 국공립사립대학이 모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테스트'를 새로 제정,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제출하였고, 1990년부터 공통1차시험은 '대학입시센터시험'으로 개칭되어 시행되었다. 시험출제형식은 기존과 같으나 이용방법이 바뀌었다. 즉 과목수가 크게 증가한 대신 대학 또는 학부가 임의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과목간 배점비율도 정할 수 있다.

일본 대학의 73%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입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어 출제 방식이나 입시일 등이 매우 다양하다.¹⁸⁾ 따라서 학생들은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입시 이외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 입시제도가 있는데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학교 행사 및 과외활동 상황, 예체능

16) 이돈희 외, 전계서, p.83.

17) 윤정일, 고등교육 입시정책(1984), p.94.

18) 이돈희 외, 전계서, pp.83-87.

특기 실력 등을 대학이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송부된 조사서의 내신점수는 학교에 따라 평가치가 다르게 된다. 이외에 에스칼레이터식 진학이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에 부속고교가 있는 경우 부속고교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은 학생이 자동적으로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적고 사학의 독자성 발휘 및 입시위주의 교육 지양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같은 제도가 그리 문제시되지 않는다.

V. 입시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입시제도의 기능으로서 1) 대학교육을 수학할 능력이 있는 적격자를 선발해 내는 기능,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가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능과, 3) 사회의 가치관 확립과 기회균등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는 우선 이러한 기본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밖에 관련되는 국가의 제반 주요정책과도 배치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준거해야 할 원칙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로,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입학전형의 주체가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입학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면 대학입학자의 선발준거와 도구, 방법 및 절차를 대학이 그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학입학전형자료와 방법은 대학교육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이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의 암기력 측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수학하기에 적합한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대학별 또는 대학내 계열 학과의 특성과 학생의 적성 소질이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입시제도라야 한다. 종래 대학입시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로 되어온 총점위주의 획일적 선발을 탈피하여 대학입시에 얼마이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입시전형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

19) 조성종, 전계서, pp.43-44 참조.

이고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이 학생 개인의 독특한 능력과 다양한 요구를 중시하는 토대위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대학입시제도는 사회정의의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시제도의 공공성과 함께 제도운영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많은 국민들이 대학입시가 사회적 선발기능을 대행한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제도 및 학생선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밀리에 편파적이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회를 배분하는데 있어, 1)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최대한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향유에 있어 차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2) 사회보장과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입시제도가 지녀야 할 기본원칙이라기 보다는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로서 정책방향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유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원칙과 방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때그때의 현실적 대응보다 교육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예고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학입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선부른 대학입시의 개정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Ⅵ. 세부적 발전방안

1. 전형의 주체

가. 대학교별 모집단위별 시행

국·공립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교들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대학입학 전형방식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대학입학전형방식에 대해 국공립과 사립간에 차등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이 국공립대학은 논술을 제외한 본고사는 시행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전형방법의 다양화와 각 대학의 여건에 부합되는 전형제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는 대학교간에 뿐만아니라 동일 대학교에서도 모집 단위(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별로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진학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총점 합격선(cutline)에 따른 학과간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 자율적 협의 조정기구 강화

현재의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전형방식을 모색하고 개별 대학들의 전형 방법들을 개선하도록 권장하는 자율적 협의조정 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종래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그러한 지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시 또는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간에 완충적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 전형참고 자료 제공기구의 체계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서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들을 전산화하여 각 대학교에 제공하는 등 전형참고자료들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자료들의 활용여부와 방법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조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전국 공통시험

가. 수학능력시험의 확충

현행 수능시험은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 수능시험은 학력고사이면서도 통합교과적이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은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이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별도의 과외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목별 암기위주의 시험으로 되돌아 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응용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차원높은 문제들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표준점수제를 보완하여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공통적인 수능시험외에 선택교과목 위주의 수능Ⅱ를 반드시 개발하여 각 대학교와 응시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가지 수능시험의 성적을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절대적인 준거로 적용하

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선택과목위주의 수능시험을 별도로 시행하여 대학에서 반영과목을 지정하고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케하는 제도가 2002학년도 부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절대 평가 방식의 전국 고교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고등학교의 각급학년별 교육목표 및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기초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를 실시 해야 한다. 현재는 몇몇 사설학원등에서 전국규모의 모의고사를 시행하는등 그러한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간영리기관에 방치하기 보다는 교육과정평가원 같은 책임있는 전문기관에서 그와 같은 학업성취도평가를 공식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매년 전국수준, 시·도별, 시·군별, 학교별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각 대학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 학교간에 학력차이가 공개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교육운영의 책무성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에 준거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형방법과 기준

가. 대학별 본고사의 최소화 권장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돕는 차원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 본고사의 시행여부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에 차등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고사의 필요성 여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설립자가 정부인가 민간인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억제하더라도 독서 및 논리적 사고를 조장하는 논술시험과 적성에 맞는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학문분야별 선택교과 시험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평가도 대학별 시험 보다는 수능시험이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을 권장할만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방법 및 기준의 자율화

각 대학교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절대평가결과, 대학별

응시자들의 고등학교별 성적분포, 출신고교별 입학생들의 대학재학중 성적등 다양한 정보 및 기록들을 토대로 고등학교 학생부의 성적을 차등평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을 추진해왔지만 고등학교간에는 현저한 학력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각 대학들 나름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학생부성적의 반영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각종 추천제와 특별전형제의 확대

고등학교 교장추천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 우수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제를 통해 선발하는 인원을 점차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교장추천제는 현재 여러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고교재학기간의 누적된 평가기록을 토대로 추천하기 때문에 인성(人性)을 비롯한 전인적(全人的)인 평가에 유리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지역별로 우수한 학생들을 균형있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인구비례로 추천인원을 할당하여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안도 부분적으로 병행할만하다고 본다. 교육감추천제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를 비롯한 특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도 대폭 확대해나가도록 권장할만 하다. 그리고 고등교육기회의 실질적인 균등화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별배려 차원에서 농어촌 학생, 소년소녀가장, 신체부자유자 등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전형기간

가. 수시모집의 확대

각 대학교들이 연중 수시로 신입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학년수료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선발을 제도화 해야 한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은 조기선발을 통해 우수학생들을 미리 확보함과 아울러 대학의 교양과목들을 미리 이수케하거나 대학교육을 위한 기초를 갖추게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거니와, 우리의 경우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만하다고 본다.

나. 특차모집의 폐지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으나 특차모집합격자는 반드시 그 대학에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행대학으로서의 특차모집이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차모집에서는 수능성적만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특차모집은 수학생력시험성적 고득점자들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점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정시모집의 기간 자율화 및 합격자등록의 통합관리

정시모집은 현행 4개 군(群)별 모집을 자율화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에 입시 일정을 각 대학교가 자유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은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학별로 연중 자유롭게 시행하는 개방체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합격여부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합격자의 등록 관리는 자율적 조정기구(예컨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전국 대학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 대학별로 학생개개인에게 통지 및 등록 여부확인을 수차례에 걸쳐 하고 있어 엄청난 업무량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를 통해 대학별 등록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5. 시행시기

현행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개선방안들은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시행에 옮기되 미리 공표·예고하여 각 대학교와 고등학교 및 응시예정자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절대평가를 기초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차등반영은 199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